

(인도자용)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7

“진실함을 전하는 것이다.”



마음열기

임금님의 궁전 정원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달콤하고 향기로워, 임금님은 그 누구에게도 나누어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임금님은 나무의 열매를 하나하나 세어 그 수를 확인하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내 귀한 열매를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고민 끝에 믿음직한 병사들을 시켜 나무를 지키게 했지만, 또 다시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키가 큰 병사... 키가 작은 병사... 병사 한 명, 한 명 떠올릴 때마다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임금님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생각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나무를 맡기면 어떨까?’ 장님이라면 열매를 볼 수 없으니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한 가지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도둑이 와도 장님은 열매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임금님은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도둑은 볼 수 있지만, 열매를 따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되겠군!’ 그렇게 장님과 앓은뱅이가 함께 나무를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 열매는 안전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달콤한 향기가 정원 가득 퍼지자, 장님과 앓은뱅이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앓은뱅이가 장님의 어깨 위로 올라타고, 둘은 힘을 합쳐 열매를 하나, 둘 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나씩 나눠 먹으며 즐거워하던 두 사람은, 점점 더 욕심이 커져 결국 나무에 열린 열매의 절반 이상을 먹어치우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무를 바라본 임금님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열매가 반 이상 사라졌어...!’ 화가 치밀어 오른 임금님은 두 사람을 불러 벌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님과 앓은뱅이는 각자의 이유를 조리 있게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임금님은 더 이상 꾸짖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임금님은 자신의 의심 때문에 열매를 잃고, 뜻밖에도 두 사람에게 상까지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열매는, 이렇게 의심 많고 기발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신뢰를 저버린 때가 있었는가? 어떤 일로 인해 그렇게 되었는가? 그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나눔

1. 아래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서로 나누어 주세요.

- ☞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잃었던 경험이 있나요?
- ☞ 누군가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 ☞ 나는 스스로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 ☞ 진실함 때문에 갈등이 생긴 적이 있나요?
- ☞ 누군가에게 진실하게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 ☞ 누군가가 진실하게 나에게 말해줬을 때 느꼈던 감정을 나눠보세요.
- ☞ 누군가에게 진실함을 기대할 때, 어떤 행동이나 말에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느끼나요?
- ☞ 친구나 가족에게 진실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창세기 2:25-3:10

25.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 타락하기 전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였고(2:25절)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 숨길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서로를 갈라 놓는 땃땃치 못한 비밀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한 일은 어떤 것인가요? (3:7절) 타락 이전의 인간 관계와 타락 후 인간 관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 죄를 범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8,10절)

📖 이 사건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8,10절)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요?



적용과 결단

하나님은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다.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비밀도 없었다. 숨김도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진실 된 공동체로 만들어졌다.

고대 히브리에서는 육체적 사랑의 행위를 ‘아는 것’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자신의 약점까지 모두 드러내고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행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최초의 남녀에게 이 행위는 모든 관계의 완벽한 투명성을 의미했다. 그들은 서로를 온전히 알고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타락이 완벽한 공동체에 찾아왔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눈이 밝아 졌다” 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그들이 눈을 떠서 본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악몽이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에서 서로를 가리게 된다. 타락 이전의 그들은 서로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건만 이제는 자신의 본 모습을 상대방이 알까봐 너무나 두려워한다. 급기야는 자신의 창조자로부터 숨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숨으려는 성향이 당연히 돼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실체를 알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래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 받지 않았다. 사도행전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있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모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을 인격체로 대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숨게 놔두시고, 그들이 스스로 나타나도록 기회를 주신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실 되게 나타날 기회를 주신다.

건강한 공동체의 삶으로 성큼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를 개방하는 데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도 하지만 위험하다고 해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 개방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관계는 추락하고 끝내 소멸되고 말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는 믿을 만한 공동체, 약속에 충실한 마음을 가진 성숙한 공동체로 준비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를 당사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억지로 영혼의 문을 열수는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키(key)는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상상해 보라! 서로에게 가식이 없는 공동체! 똑똑한 척, 잘난 척 가장 하지 않는 공동체! 숨김이 없는 공동체! 서로에게 진실한 공동체!

달라스 윌라드가 말한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당사자의 손에 있다”는 말을 자신의 삶과 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나는 지금 어떤 ‘열쇠’를 쥐고 있나요?

소그룹 안에서 작은 자기 개방을 실천해본다면 무엇을 나누고 싶나요?



기도